

주관적·심리적 요인이 가계의 저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정 숙*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V. 결론 및 제언

I. 序 論

가계는 국민경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첫째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저축을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 중에서 저축은 가계의 안정과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가계의 저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억제 하여 장래에 보다 큰 효용을 얻게하므로써 가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켜 주는데 기여를 하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해 주므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여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가계의 저축은 가계가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소비에의 유인이 강하면 저축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소비는 현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이지만 저축은 보다 큰 욕망을 미래에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계가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지출을 희생하거나 절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서 저축은 주의깊은 계획의 결과이며 현재의 욕구를 일부 포기한 결과로서¹⁾, 현재의 소비욕구의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1) P. Nickell and J. M.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th edition, New Delhi : Weley Eastern Limited, 1976, pp.210-341.

강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소득압박, 위험감소를 포함한 재정목표의 강도 및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가계가 인지하고 있는 저축의 유효성과 관계가 있는²⁾ 것이다.

행동생애주기가설(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³⁾에 따르면, 개인은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Doer)와 기획자(Planner)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는 현재의 소비를 추구하고 기획자는 미래의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은 행위자와 기획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획자는 미래의 소비 대신 현재의 소비에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참아야 하는 고통(심리적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재정목표에 따라 현재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저축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대중소비사회에서는 자유재량적 소득의 증대와 물질적 필요로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하며 심리적 요인인 소비자의 동기, 태도, 과거경험, 전망 등이 경제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⁴⁾.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인인 저축동기나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의식 등과 같은 요인이 제한된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Katona⁵⁾는 인지, 태도, 가치, 낙관주의, 비관주의 및 만족 등과 같은 심리적 개념들이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Keynes⁶⁾는 일정한 소득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지출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제유인이 있다고 하였다.

가계는 제한된 소득으로부터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을 근거로 가계의 소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인 저축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계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의 배분 과정에서 저축하려는 욕구와 소비하려는 욕구가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는 이 두 욕구 사이에서 균형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가계의 저축결정과정에서 가계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의식, 저축동기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B. Strumpel, Saving Behavior in Wester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65(2), 1965, pp. 210-216.

3) H. M. Shefrin and R. H. Thaler,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 1988, pp. 609-643.

4) 佐右井貞行, 大衆消費社會とG-カトナの〈消費〉概念, 國民生活研究 第2卷 第3號, 1985, pp. 107-121.

5) G. Katona,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 Elsevier, 1975, pp. 177-226.

6)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36, pp. 107-1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과 저축 동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이들 요인들이 가계의 저축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행동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인 배경

1. 저축의 목적과 동기

저축은 투자이고 연기된 소비⁷⁾이므로 가계의 저축은 그 목적이 잘 계획되고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가계는 저축을 위한 규칙적인 계획을 확립할 수 있다. 각 가계는 장기적인 가계운동을 위하여 단순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가지 목적과 동기를 근거로 저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하게 된다.

예견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⁸⁾ 미래의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⁹⁾ 저축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무한한 것이다¹⁰⁾.

저축동기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Keynes는 그의 일반이론 제9장¹¹⁾에서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제유인(諸誘因)에 대하여 ① 예비(불의의 사태를 위한 준비), ② 심려(노후, 교육 등을 위한 준비), ③ 타산(장래의 가치증식의 향수), ④ 향상(장래의 생활수준의 향상), ⑤ 독립(독립의식과 생활력의 획득), ⑥ 기업(사업 운용자금의 준비), ⑦ 자존(재산의 상속), ⑧ 탐욕(인색욕의 만족) 등 8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재정에 대한 연구에서 Katona¹²⁾는 ① 불확실한 미래의 긴급상황을 위하여, ② 은퇴를 위하여, ③ 자녀나 혹은 가족의 욕구(교육이나 다른 큰 요구)를 위하여, ④ 기타 다른 목적(주택, 여행, 가구설비 등)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西垣一郎¹³⁾은 ① 언제 일어 날지 모르는 뜻하지 않은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②

7) 淺田彰·佐和隆光譯, 儀禮としての消費, 東京 : 新曜社, 1984, p.30.

8) R. E. Deacon and M. F.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81, p.110.

9) P. Nickell and J. M. Dorsey, *op. cit.*, p.341.

10) G. Katona, *op. cit.*, p.233.

11) J. M. Keynes, *op. cit.*, pp.107-108.

12) G. Katona, The Mass Consumption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4, pp.176-177.

13) 西垣一郎, 家庭經濟概論, 東京 : 明文書房, 1980, pp.48-49.

예측 가능한 장래의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③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가계는 저축을 한다고 하였으며, 今井光映과 堀田剛吉¹⁴⁾은 저축동기로, 상속인을 위하여 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욕구, 현재와 장래의 소득흐름과 바람직한 소비흐름의 불일치를 조정하려는 욕구, 완전히 예견될 수 없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을 기대하기 위한 욕구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가계의 저축동기는 첫째, 예견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둘째, 장래의 필요를 예상한 장기준비적 동기, 셋째, 비교적 단기간에 있어서 소득의 취득시기와 소비의 시기와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단기준비적 동기, 넷째, 이자나 가치상승을 향수하려고 하는 이윤동기, 다섯째, 영업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영업유지동기, 여섯째,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유산동기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¹⁵⁾. 이 중에서도 예비적 동기나 장기 준비적 동기는 저축의 성격상 많은 가계에 공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계의 저축은 가까운 장래의 욕구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먼 장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단순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가계는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동기를 근거로 저축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2. 가계의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의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내적 요인으로는 소득구조, 물가구조 및 조세 등을 들 수 있고, 경제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저축심리, 전통적 가치개념 및 저축·소비 태도 등을 들 수 있다¹⁶⁾. 가계소득, 사회보장제도, 소비자물가 및 습관효과와 전시효과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들이 가계의 저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계소득

가계의 가치분 소득이 어떤 비율로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소비함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이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가설이 제안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유동자산가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 등이 있다. 이들 각 이론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서 지지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모두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다¹⁷⁾.

14) 今井光映·堀田剛吉, 家政經濟學, 東京 : 朝倉書店, 1978, pp.105-106.

15) 日本家政學會, 家庭經濟學, 東京 : 朝倉書店, 1993, p.111.

16) 한국은행저축부, 국민저축현황, 1985, p.16.

17) R. Ferber, Research on Household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1), 1962, pp.20-21.

가계에 있어서 현재의 절대소득의 크기는 저축수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절대소득가설¹⁸⁾이다. 저축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득이라는 것은 저축에 관한 이론의 가장 오래된 가설로서¹⁹⁾ 처음으로 정식화된 것이다. 그후 Dusenberry²⁰⁾는 과거의 소득수준 및 사회집단내의 상대소득수준이 소비 및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상대소득가설을 제안했으며 전시효과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유동자산가설²¹⁾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유동자산이 많으면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항상소득가설²²⁾에 의하면 가계의 소득 중에서 항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며 일시적인 잠정소득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생애주기가설²³⁾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상소득을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소비하고 저축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사회에서 일하는 동안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하고, 가족은 그들의 유효한 자원으로부터 최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생애에 걸쳐서 그들의 소비를 조정하게 된다.

2)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의 저축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설과 부정적인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준이 낮으면 저축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²⁴⁾. 사회보장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저축의 동기나 목적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로 대체될 수 있는 불의의 상황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의 목적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

3) 소비자물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율이 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가계는 저축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저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된다.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18) J. M. Keynes, *op. cit.*.

19) 朴在潤, 서울 非勤勞者 家計의 貯蓄行態, 經濟論集, 第XVII卷 第2號, 서울대학교, 1979, p. 204.

20) J. S. Dusenberry,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21) J. Tobin, *Relative Income, Absolute Income, and Saving*, i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John Henry Williams*, New York ; Macmillan, St. Martins Press, 1951, pp.135-156.

22) M.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23) A. Ando and F.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1963, pp.55-84.

24) 伊藤秋子, 改訂家庭經濟學, 東京 : 光生館, 1980, p.204.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²⁵⁾. 저축의 목적과 동기는 모두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지출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저축 의욕은 감퇴되지 않는 것이다²⁶⁾.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저축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므로 저축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러나 중하계층은 오히려 장래에 대한 생활불안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그에 따른 준비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4) 습관효과와 전시효과

습관효과와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소득의 크기가 소비행동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번 높아진 소비수준은 습관 지속성(habit persistence)의 효과 때문에 소득이 낮아질 경우에도 그것에 대응하여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성향은 불황시에 보다 높아지게 되고 호황시에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²⁷⁾. 그것은 소비자들이 효용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저항하기²⁸⁾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적어도 현재의 효용수준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소비행동은 전시효과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된다. 가계의 소비성향은 다른 가계의 소비나 혹은 사회의 소비수준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직업이나 지역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는 전시효과와 영향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각 개인은 자기보다 높은 소득수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3. 선행 연구의 고찰

저축 행동에 관한 연구는 고전경제학 이래로 경제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

25) 伊藤秋子, 전게서, pp.205-206.

26) 今井光映 堀田剛吉, 전게서, p.106.

27) 西垣一郎, 전게서, p.55.

28) D. B. Eastwood,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85, p.140.

29) 西垣一郎, 전게서, p.55.

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경제행동을 예측하려는 심리경제학³⁰⁾의 발달로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elan과 Schvaneveldt³¹⁾는 한 가정의 청소년기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경험하고 획득하게 되는 기술(skill)이나 태도 등에 따라서 저축과 소비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화폐사용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훈련과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Hefferan³²⁾은 저축할 능력이 일단 충족되면 가족의 저축수준은 소득수준이 아니라 저축에 대한 선호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며, 소득이 가족의 모든 예산결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기와 경험도 또한 가족의 저축수준에 대하여 중요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Davis와 Schumm³³⁾은 저축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축을 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저축에 대하여 덜 만족한다고 하였다.

問夕田孝夫³⁴⁾와 李敏杓과 池英淑³⁵⁾은 저축과 소비에 대한 태도와 저축행동 사이에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저축에 적극적이고 소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록 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襄茂基³⁶⁾와 朴在潤³⁷⁾은 가구주의 소득,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직업, 가족수에 따라 가계저축율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조희금³⁸⁾은 가계의 평균 저축율과 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정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희숙³⁹⁾은 은퇴한 노인가계의 어떤 특정한 지출비목의 소비형태는 총 가계자산 뿐만 아니라 가계가 어떠한 저축형태(자산형태)를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
- 30) G. Katona, *op. cit.*, G. Katona,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1974, pp.1-8.
- 31) G. K. Phelan and J. D. Schvaneveldt, Spending and Patterns of Adolescent Sibl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61(2), 1969, pp.248-249.
- 32) C. Hefferan,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2), 1982, pp.47-55.
- 33) E. P. Davis and W. R. Schumm,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 A Comparison of Low- and High-Income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1987, pp.247-256.
- 34) 問夕田孝夫, 貯蓄・消費に関する規範的意識の分析 - 貯蓄行動との關聯を中心として, 國民生活研究 第19卷 第3號, 1979, pp.13-36.
- 35) 李敏杓・池英淑, 貯蓄・消費에 대한 規範的 意識과 貯蓄行動에 關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제2호, 1985, pp.107-121.
- 36) 襄茂基, 서울 勤勞者 家計의 貯蓄行態, 經濟論叢 第XVII卷 第2號, 서울대학교, 1979, pp.161-169.
- 37) 朴在潤, 전제서, pp.197-235.
- 38)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태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 1984, pp.57-66.
- 39) 이희숙, 일하는 기간 동안의 가계저축태도와 은퇴후 가계소비태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소비자학회, 1985, pp.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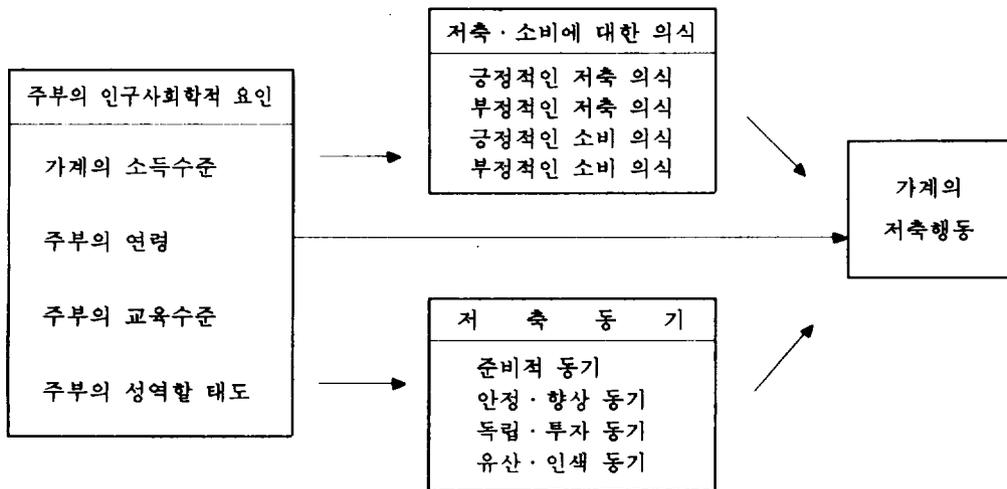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주부들은 저축·소비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계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축하고 있는가 ?
- (2)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는 가계의 저축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3)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행동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가 ?

이러한 연구문제를 기초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580가구를 대상으로 95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면접조사와 유치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한 가계, 여성가구주 가계, 저축할 능력이 안되는(저축이 없는) 가계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⁴⁰⁾, 453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계의 소득수준과 저축율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계의 저축율은 가계의 월평균 저축율로서 월평균 저축금액을 조사하여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저축행동은 저축유량(flow), 저축저량(stock), 저축율 등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가계의 월평균 저축수준과 저축율로 가계의 저축행동을 측정하였다.

2)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측정도구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間夕田孝夫⁴¹⁾와 李敏杓와 池英淑⁴²⁾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저축에 대한 의식 8개 문항과 소비에 대한 의식 7개 문항으로 모두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Likert)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6개로서 저축은 미덕이고 바람직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2개로서 무리하면서까지 저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로서 소비는 미덕으로 돈은 기분 좋게 쓰는 것이며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3개로서 사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가계의 저축동기 측정도구

가계의 저축동기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⁴³⁾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준비적 동기, 생활안

40) 현재 저축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41) 間夕田孝夫, 전제서, pp.16-18.

42) 李敏杓 池英淑, 전제서, p.112.

43) Keynes, *op. cit.*, pp.107-109, 奥村忠雄, 家計支出行爲の心理學的分析法について, 大阪市立大學社會福祉論集 第8卷, 1960, pp.37-52, 戸田正吉, 家庭經濟學, 東京: 酒井書店, 1980, pp.193-216, 日本家政學會, 전제서, p.111, R. E. Deacon and F. M. Firebaugh, *op. cit.*, pp.110-115.

정·향상동기, 독립·투자동기, 유산·인색동기 등 4가지 동기에 대하여 각각 2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르트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부의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주부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Venkatesh⁴⁴⁾가 여권신장주의(feminism) 척도로 사용한 10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여권신장주의 척도는 Kirkpatrick⁴⁵⁾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을 Arnott⁴⁶⁾가 10개 문항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르트 방식에 따라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총점이 10-36이면 전통주의형(traditionalists)으로, 37-42이면 중간형(moderrates)으로, 43-50이면 여권신장론형(feminists)으로 분류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으로 검증되었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는 0.7536이었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모두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이용된 통계적 기법은 빈도, 백분율,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었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150만원 - 200만원이, 가계의 저축수준은 40만원 - 7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약 53%의 가계가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수는 3 - 4인이, 남편과 주부의 학력은 고졸이,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성역할 태도는 중간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권신장론형은 약 8% 정도에 불과하였다.

44) A. Venkatesh, Changing Roles of Women - A Life-Style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1980, pp.189-197.

45) C. Kirkpatrick, The Construction of Belief-Pattern Scales or Measuring Attitudes toward Femin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1936, pp.421-437.

46) C. C. Arnott, Husbands' Attitudes and Wives' Commitment to Employ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1972, pp.673-681.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만원)

| 구분 | 빈도 | (%) | 구분 | 빈도 | (%) | | |
|-------------------|----------|--------|--------|----------------|-----------|--------|--------|
| 소* 득수 준 | 100 미만 | 46 | (10.2) | 농 어 업 | 44 | (9.7) | |
| | 100-150 | 112 | (24.7) | 남 자 영 업 | 88 | (19.6) | |
| | 150-200 | 123 | (27.2) | 남 편 서 비 스 직 | 41 | (9.1) | |
| | 200-250 | 83 | (18.3) | 직 사 무 기 술 직 | 223 | (49.2) | |
| | 250-300 | 65 | (14.3) | 업 전 문 직 | 26 | (5.7) | |
| 300 이상 | 24 | (5.3) | 기 타 | 31 | (6.8) | | |
| 저* 축 수 준 | 20 미만 | 71 | (15.7) | 저 축 율 10% 이하 | 30 | (6.6) | |
| | 20 - 40 | 110 | (24.3) | 저 축 율 10 - 20% | 83 | (18.3) | |
| | 40 - 70 | 147 | (32.5) | 저 축 율 20 - 30% | 98 | (21.6) | |
| | 70 - 100 | 86 | (19.0) | 저 축 율 30 - 40% | 115 | (25.4) | |
| | 100 이상 | 39 | (8.6) | 저 축 율 40% 이상 | 127 | (28.0) | |
| 남 편 학 력 | 국 졸 | 16 | (3.5) | 주 부 국 졸 | 51 | (11.3) | |
| | 중 졸 | 54 | (11.9) | 주 부 중 졸 | 118 | (26.0) | |
| | 고 졸 | 210 | (46.4) | 학 려 고 졸 | 213 | (47.0) | |
| | 대졸이상 | 173 | (38.2) | 학 려 대 졸 이 상 | 71 | (15.7) | |
| 남 편 연 령 | 30세 미만 | 50 | (11.0) | 주 부 30세 미만 | 93 | (20.3) | |
| | 30 - 40세 | 224 | (49.4) | 주 부 30 - 40세 | 247 | (53.8) | |
| | 40 - 50세 | 135 | (29.8) | 연 령 40 - 50세 | 92 | (20.0) | |
| | 50세 이상 | 44 | (10.7) | 연 령 50세 이상 | 27 | (5.9) | |
| 구 성 원 수 | 2 인 | 61 | (13.5) | 성 역 할 | 전 통 주 의 | 146 | (32.2) |
| | 3 - 4인 | 31 | (68.4) | | 중 간 형 | 269 | (59.4) |
| | 5 - 6인 | 51 | (11.3) | | 여 권 신 장 론 | 38 | (8.4) |
| | 7인 이상 | 31 | (6.8) | | | | |
| 취 업 | 유 | 97 | (43.5) | 계 | | 453 | (100) |
| | 무 | 256 | (56.5) | | | | |

2.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수준

1) 저축에 대한 의식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부정적 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약 92%), 풍요하더라도 저축은 해야 한다(약 93%)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약 78%가 저축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 5%만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무리가 되더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약 61%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약 19%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 중 얼마는 반드시 저축하고 나머지를 소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68%가 그렇다고 하였고, 약 15%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표 2〉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

() ; %

|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 | 찬 성 | 보 통 | 반 대 |
|---|------------|-----------|-----------|
|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417 (92.1) | 35 (7.7) | 1 (0.2) |
| 풍요하더라도 저축은 해야 한다. | 420 (92.7) | 28 (6.2) | 5 (1.1) |
| 저축은 미덕이다. | 352 (77.7) | 79 (17.4) | 22 (4.9) |
| 돈이 생기면 그 중 얼마는 반드시 저축하고 그 나머지를 소비해야 한다. | 308 (68.0) | 76 (16.8) | 69 (15.2) |
| 저축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한다. | 277 (61.1) | 92 (20.3) | 84 (18.5) |

한편,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의식(표 3)을 보면, 저축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47% 정도나 되었으며 약 28% 정도 만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65%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약 17%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은 저축은 바람직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강제적 의미를 가진 무리하게 저축을 하거나 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의식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식 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수의 주부들은 무리하면서까지 저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의식

() ; %

|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의식 | 찬 성 | 보 통 | 반 대 |
|--------------------------------------|------------|------------|------------|
|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저축할 필요가 없다. | 79 (17.4) | 79 (17.4) | 295 (65.1) |
| 저축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 211 (46.6) | 116 (25.6) | 126 (27.8) |

2) 소비에 대한 의식

〈표 4〉와 〈표 5〉는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부정적 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약 79%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약 11% 정도는 그렇다고 하였다. 약 75%가 돈을 쓰는 동안은 기분 좋게 쓰고 다 쓰면 또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

64%는 돈을 쓰기 위한 것이지 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의식에서는 약 78% 정도가 저축은 미덕이고 약 5% 정도 만이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고 한 것에 비하여 소비에 대한 의식에서는 약 61% 정도 만이 소비가 미덕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약 16% 정도나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에 대한 의식 보다는 저축에 대한 의식이 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보면(표 5), 약 91% 정도는 인간은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사치는 적이라는 의식에 대해서는 약 64%만이 그렇다고 하였고 약 21%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약 83%는 수입을 전부 써버리는 것은 아무지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약 14%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보다는 부정적 의식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표 4〉 소비에 대한 긍정적 의식

() ; %

| 저축에 대한 부정적 의식 | 찬 성 | 보 통 | 반 대 |
|---|-----------|------------|------------|
|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 49 (10.8) | 46 (10.2) | 358 (79.0) |
| 돈은 쓰기 위한 것이지 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67 (14.7) | 96 (21.2) | 290 (64.0) |
| 돈을 쓰는 동안은 기분좋게 쓰고 다 쓰면 또 벌면 된다. | 58 (12.8) | 57 (12.6) | 338 (74.6) |
| 소비는 미덕이다. | 74 (16.3) | 105 (23.2) | 274 (60.5) |

〈표 5〉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의식

() ; %

|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의식 | 찬 성 | 보 통 | 반 대 |
|-----------------------------|------------|-----------|-----------|
| 수입을 전부 써버리는 것은 아무지지 못한 일이다. | 374 (82.6) | 18 (4.0) | 61 (13.5) |
| 인간은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 411 (90.7) | 36 (7.9) | 6 (1.3) |
| 사치는 적이다. | 291 (64.2) | 67 (14.8) | 95 (21.0) |

3. 가계의 저축동기

가계는 여러 가지 동기를 근거로 저축을 하게 된다. 8가지의 저축동기에 대하여 가계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약 92% 정도의 가계가 불의의 사태를 위하여, 그리고 약 90% 정도의 가계가 노후, 교육

등을 위하여 저축을 한다고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서 준비적 동기가 공통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었다.

장래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저축하는 경우는 약 75% 정도였으며 약 7% 정도만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독립의식과 생활력을 얻기위한 동기에 대해서는 약 61% 정도가 그렇다고 하였고 약 17%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 대해서는 약 47% 정도는 그렇다고, 약 18%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준비적 동기 다음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력의 획득, 사업운영자금준비 등의 동기가 중요시되고 있었다.

〈표 6〉 저축동기에 대한 의견

() : %

| 저 축 동 기 | 긍 정 | 보 통 | 부 정 |
|--------------|------------|------------|------------|
| 불의의 사태의 준비 | 417 (92.1) | 28 (6.2) | 8 (1.8) |
| 노후, 교육 등의 준비 | 406 (89.6) | 39 (8.6) | 8 (1.8) |
| 장래의 가치증식 | 142 (31.3) | 150 (33.1) | 161 (35.5) |
| 장래의 생활수준 향상 | 341 (75.3) | 79 (17.4) | 33 (7.3) |
| 독립과 생활력의 획득 | 276 (60.9) | 99 (21.9) | 78 (17.2) |
| 사업운영자금의 준비 | 214 (47.2) | 112 (24.7) | 127 (28.0) |
| 재산의 상속 | 82 (18.1) | 111 (24.5) | 260 (57.4) |
| 소비지출의 억제 | 122 (26.9) | 124 (27.4) | 207 (45.7) |

긍정, 보통,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저축동기는 장래의 가치증식을 위한 동기였으며, 긍정적인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경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저축동기는 재산상속을 위한 유산동기와 단순히 소비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서 저축하는 인식동기였다.

즉 약 27% 정도나 단순히 소비지출하는 것이 아까워서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약 46% 정도만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기 위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약 18% 정도나 되었으며 약 57% 정도만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7〉은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부의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수준과 저축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가계의 저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유산 인색동기였으나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 독립·투자동기, 유산·인색동기 등의 요인이었다.

〈표 7〉 가계의 저축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설 명 변 수 | 저 축 수 준 | 저 축 율 |
|-------------------------|-------------|----------|
| 가계 소득수준 | 0.5158*** | 0.3630 |
| 가계 구성원수 | -0.0469 | -0.0615 |
| 주부의 연령 | 0.0387 | -0.0893* |
| 주부의 교육수준 | 0.0511 | 0.0409 |
| 긍정적인 저축의식 | 0.0580 | 0.0617* |
| 부정적인 저축의식 | 0.0077 | -0.0521 |
| 긍정적인 소비의식 | -0.0405 | 0.0165 |
| 부정적인 소비의식 | 0.0278 | 0.0249 |
| 준비적 동기 | -0.0475 | -0.4520 |
| 안정·향상동기 | 0.0033 | 0.0193 |
| 독립·투자동기 | 0.0051 | 0.0247* |
| 유산·인색동기 | 0.0786* | 0.0859* |
| 상수항 | -99013.9852 | 33.0358 |
| Adjusted R ² | 0.2698 | 0.1245 |
| F | 14.85*** | 3.53** |

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모든 변수는 회귀분석에 의한 표준화 회귀계수(β)이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저축수준에는 아주 유의한 영향($\beta=0.516$)을 미치고 있었으나 저축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은 가계의 저축수준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계의 저축율에서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축동기에서는 유산·인색동기는 저축수준과 저축율 모두에, 독립·투자동기는 저축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첫째,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저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러나 가계의 저축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며, 둘째, 가계의 저축행동은 저축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동기가 그리고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비적 동기나 생활의 안정·향상동기는 저축의 성격상 많은 가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저축동기⁴⁷⁾이므로 대부분의 가계는 우선적으로 장래의 준비나 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립·투자동기나 유산·인생동기는 대부분의 가계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저축동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동기수준에 대한 강도는 가계의 저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가계는 제한된 소득을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하게 되므로 저축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수준이다.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가계의 저축행동의 한 특징이다⁴⁸⁾. Hefferan⁴⁹⁾도 처음 저축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득이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저축수준은 현재의 부의 상태에 의해 더 잘설명된다고 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저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가계가 보다 많은 저축을 하는 경향⁵⁰⁾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저축수준이 높은 저축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소득수준의 가계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저축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증가와 더불어 저축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비율은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저축율도 1979년의 18.2%에서 1988년까지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계속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1988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9년부터는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⁵¹⁾.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가계의 저축행동은 소득수준 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인 저축에 대한 동기나 선호 및 저축 소비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6. 가계의 저축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와 <그림 3>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과 연령 및 성역할 태도는 가계의 저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긍정적인 저축의식과 유산·인생동기 및 독립·투자동기 등을

47) 日本家政學會, 전계서, p.111.

48) 朴在濶, 전계서, p.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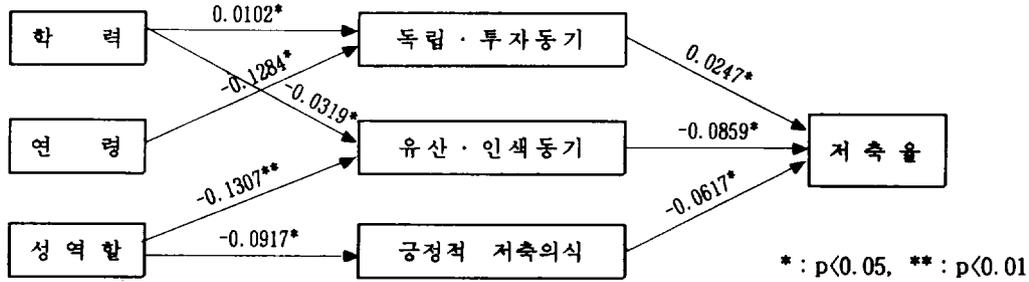
49) C. Hefferan, *op. cit.*, pp.51-53.

50) E. P. Davis and W. R. Schumm, *op. cit.*, pp.247-256, A. C. Foster, Wives' Earnings as a Factor in Family Net Worth Accumulation, *Monthly Labor Review* 104(1), 1981, pp.53-57, C. Hefferan, *op. cit.*, pp.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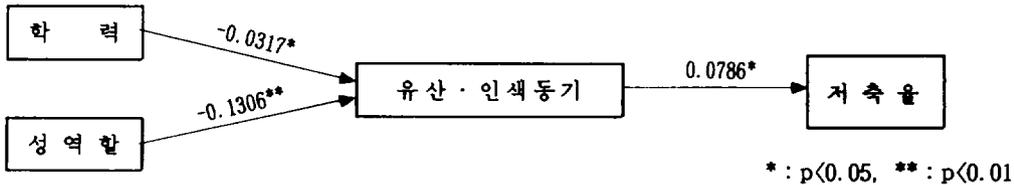
51)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79, 1988, 1991, 1994.

1988년에는 38%였으나 1991년에는 36.1%, 1994년에는 28.2%였다.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부의 학력은 유산·인색동기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율과 저축수준에, 연령은 독립·투자동기를 통하여 가계의 저축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역할 태도는 유산·인색동기를 통해서도 가계의 저축율과 저축수준에, 그리고 긍정적인 저축의식을 통해서도 가계의 저축율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2> 가계의 저축율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그림 3> 가계의 저축수준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주부의 학력은 낮을수록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소비지출이 가까워서 저축하는 유산·인색동기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게 되어 가계의 저축율 뿐만 아니라 저축수준도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연령은 적을수록 생활력의 획득과 사업자금마련을 위하여 저축하는 독립·투자동기가 높아지게 되므로 가계의 저축율을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할수록 유산·인색동기와 저축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유산·인색동기를 통해서도 가계의 저축수준과 저축율을 높게 되고,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통해서도 가계의 저축율을 높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제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저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러나 가계의 저축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은 가계의 저축수준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계의 저축율에서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저축동기에서는 유산·인색동기는 저축수준과 저축율 모두에, 독립·투자동기는 저축율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가계의 저축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동기가 그리고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더 의미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부의 학력, 연령, 성역할태도 등의 요인은 가계의 저축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저축의식과 유산·인색동기 및 독립·투자동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의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저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식보다 긍정적 의식에,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식보다 부정적 의식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은 저축은 바람직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식 만큼 무리해서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거나 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수의 주부들은(약 47%) 무리하면서까지 저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부들이 인간은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약 16%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약 21%는 사치가 적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저축동기에서는 준비적 동기가 거의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저축동기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력의 획득, 사업운영자금준비 등이 많은 가계에서 중요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저축수준을 예측할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가계의 저축율을 예측할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수준 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저축동기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기보다는 저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물질적 풍요와 자유재량소득액의 증대와 더불어 앞으로 가계의 저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저축행동의 동인은 심리학적 분석과 결부지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